

공립유치원 이렇게 교육합니다.

- 예절, 질서, 절제, 청결의 기본생활습관지도 교육
- 세계화·국제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
-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태도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 우리문화, 우리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의 전통문화교육
-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기초 질서를 지키는 안전교육
- 놀이, 경험을 통한 활동중심과 현장체험 중심교육
-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교육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

제 8 회

완주 유치원 아이 사랑

어울 한마당

• 일시 : 2010년 6월 19일(토) 09:30~12:30

• 대상 : 완주 유치원 원아 및 가족

• 장소 : 우석대학교 실내체육관

• 주관 : 완주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 주최 : 전라북도완주교육청



모시는 글

녹음의 향기가 가득하고
바라만 보아도 가슴 설레는 6월에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제8회 완주 유치원 아이 사랑 어울 한마당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의 희망 싱그러운 유아들과 하나 되어
함께 웃고, 함께 뛰고, 함께 달리면서
함박 웃음 가득 채울 축제 한마당에
소중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0년 6월 19일

완주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 영 자 올림



제8회 완주 유치원 아이 사랑 어울 한마당 팀 구성



빨강팀

봉동, 고산, 호산
운주, 가천, 비봉



황안팀

봉서, 삼례동
간중, 청완, 동상



노랑팀

구이, 대덕, 상곡, 태봉,
이서, 청명, 삼우



파랑팀

소양서, 남관, 송광, 용봉,
삼례중앙, 이서, 삼례,
소양, 동양, 봉성, 용진

우리아이 **꼭**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



최근 인지과학 연구들은 0세부터 만5세 사이에 뇌발달이 80% 이상 이루어짐을 보고하면서 특히 신경회로가 발달하는 만3·4·5세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인재가 될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시작하세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제 8 회

완주 유치원 아이 사랑

어울한마당

1부 여는 마당 (09:30~10:00)

- 개회사
- 국민의례
- 대회사 및 환영사
- 격려사 및 축사
- 우리의 약속 및 교사의 다짐

2부 아이 사랑 어울한마당 (10:00~12:20)

- 응원전 (팀별 응원전 및 팀별 율동)
- 바쁘다 바빠
- 나는 UFO
- 막대릴레이
- 대형공 나르기
- 구름다리 건너서
- 지구는 하나
- 레크댄스
- 꿈을 향하여
- 힘내라 힘!
- 인간터널 / 힘내세요
- 쥐와 고양이
- 대형 배턴 릴레이
- 줄다리기

3부 닫는 마당 (12:20~12:30)

- 정리체조
- 폐회사



식순

- 개회사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대회사
- 환영사
- 격려사
- 축 사
- 우리의 약속
- 교사의 다짐





환영사



녹음이 짙어가고 장미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는 6월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유치원 어린이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많은 분들을 모신 가운데 '제8회 완주 공립유치원 아이 사랑 어울 한마당 축제'를 청정의 고장 완주에서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꿈을 가진 어린이만이 내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어울 한마당을 통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생각도 튼튼한 꿈을 가진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 그리고 우리 공립유치원을 믿고 자녀를 맡겨 주신 학부모님과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 6. 19

전라북도완주교육청교육장 김 동 복



격려사



우리 유아들처럼 싱싱한 이파리가 산하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8회 완주 공립유치원 아이 사랑 어울 한마당 축제'가 열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유아들을 해맑게 길러주시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완주교육청 김동복 교육장님과 완주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영자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어린 영혼과 신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욱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교육감인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의 귀한 자녀를 어버이된 마음으로 어버이의 손길로 보살필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의 축제가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사랑을 펼쳐 보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 6. 19

전라북도교육감 최 규 호

유치원은 만 3세 · 4세 · 5세가 다니는 '학교'입니다.